

조선의 참모습

전체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헤쳐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공화국은 세인의 동경과 격찬을 받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있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국가정치체계의 근본초석으로 되고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사회주의조선이 그 어떤 정치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불가늠을 모르는 기적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근본바탕에는 명백히 일심단결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조선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언젠가 터놓으신던 뜨거운 심중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정말 이른 멧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환번씩 뭉클해지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약별이 내리쬐이는 한낮에도, 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조울고있는 이른새벽에도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인민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는 려명거리에 둘러보면 새로 일떠서는 거리가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로 되게 하여주시려 수습차에 걸쳐 무려 1390여건의 형성안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뜻하지 않은 큰물로 피해를 입었던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해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이전보다 더 훌륭한 보급자리에 들었다는 고마움의 격정이 울려오나.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끝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그이께 매혹된 인민들은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도처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과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

속공업부문에서 국내외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제철생산체계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삼지연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건설장들에서 새로운 건설속도로 들쭉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중산과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진과 비약의 구조를 제시하시면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일떠서고 그이께서 어느 단위를 찾으시어 치하의 말씀을 주시면 온 나라가 그 단위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열풍을 일으켜나가는것이 령도자와 일심일체를 이룬 공화국의 모습이다.

은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속에서

미덕의 소유자, 미풍의 선구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20대 꽃나이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품어안고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쳐녀어머니》의 소행이나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고 일생의 동행자가 되는 청년들의 미덕은 모두가 한식술, 친형제가 되어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얼마전에 있는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가려는 배우는 열풍을 일으켜나가는것이 령도자와 일심일체를 이룬 공화국의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경남도 제201호선거구 제94호분구선거장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환표, 기쁨의 환표를 바쳐가는 근로자들

면회자를 위한 식사실

주제101(2012)년 11월 어느날 평양산림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층에 있는 식사실에도 들리시었다. 그이께서는 2층에 꾸린 식사실은 입원환자들을 위한 식사실인것만큼 여기에서는 면회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었다. 원래 병원들에는 면회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식사할수 있는 장소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이 음식을 만들어 봉사해주는 곳은 아닌것만큼 면회 장소에 식탁과 의자만 놓아주면 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가족들과 면회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과일이나 청량음료를 비롯하여 음식들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써놓고 환자와 함께 먹을수 있는 장소를 잘 꾸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품들여 준비하신 자료

주제104(2015)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이곳에 농기계전시장을 꾸려놓은 다음 인차 나와보려고 하였지만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문제를 연구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오느라고 오늘에야 나왔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들을 조사한 자료들을 일군들모두에게 한바씩 안겨주시면서 이 자료에는 버농기계와 강병이농기계를 비롯하여 250종의 농기계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그 농기계들은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으로 되어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로력절약형농기계들이라고 하시었다.

증시하신 진절성문제

주제103(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기상수문국을 찾으시었다. 기상수문국 사업의 전반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그이께서는 일기예보에서 봉사수준을 높일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기예보봉사수준을 높이자면 일기예보봉사를 지금처럼 날세만 알려주는것으로 할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어 최근에 예견되는 날씨의 특성을 알려주면서 습할 때와 건조할 때, 황사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겨울철에는 어느 도로에 얼음이 깔렸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치시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로지 혁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애를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장이시이다.

그이께서는 가정보 청춘도 포부와 리상도 모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일심일치의 모든것을 민족자주위업실현에 바치시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팔도구소학교시절에 쓰신 《애국》이라는 작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 가자면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일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의무로 된다. ...

열렬한 애국사상과 민족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백백히 흘러넘치는 이 구절에 그 누구도 지너본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생관과 조국애가 함축되어있다.

어린시절에 벌써 일제의 침략으로 도란에 빠진 겨레의 운명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비통해하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길, 애국의 길에 삶

가사우에 국사를 놓으시고

의 목표를 정하시었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도 오직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두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생관은 김일시절의 잊을수 없는 스승에게 하신 말씀에도 력력히 어려어 있다.

당시 사형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가가 될것을 권유해드리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선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있다고,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흑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이라고 하시었다.

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선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다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다고, 그것이 저의 최대

의 리상이구 포부이라고,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것이라고 자신의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항학열에 불라고 진취성이 강하며 꿈이 많던 그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나라찾는 애국위업을 자신의 포부와 리상으로 내세우시고 결연히 험난한 투쟁의 길에 나시신것이다.

그 나날 국제당에서 그이께 두차례나 외국문학을 권고하였을 때에도 타국의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리론을 탐구할수 있는 길을 마다하시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현실에 몸을 잠그신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루빨리 구원하시려는 강렬한 조국애와 민족애의 발현이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도 이국의 거처큰 산야에 묻으시고 사랑하는 동생분들과 생리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모진 슬픔과 괴로움도 혁명을 위하여 고스란히 가슴속에 묻어두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혁명선배였고 스승이시었던 아버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

을 웃으시며 맞바어나아가시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남다르시었다.

가기에 그이께서는 새 신을 사서 신으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짚신을 신고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고무신을 사드리었다는 일화도 남기시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 혈육에 대한 사랑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올려놓으시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도 이국의 거처큰 산야에 묻으시고 사랑하는 동생분들과 생리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모진 슬픔과 괴로움도 혁명을 위하여 고스란히 가슴속에 묻어두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혁명선배였고 스승이시었던 아버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

의 아픔도 이겨내고 결연히 애국의 길에 나시시었다. 그리고 갖 창건된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남만린정을 하시느라 어머니의 림중도 지켜드리지 못하시었다.

부모님을 잃은 다음 가장이 되셔야 할 몸임에도 갈대만 처량하게 설레이는 들판에서 설움에 우는 두 동생분을 남겨두신채 기약할수 없는 투쟁의 길을 떠나신 수령님이시었다.

가사우에 국사를 놓으시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항일대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은공을 떠나 자주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력사, 민족의 밝은 래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설

의 아픔도 이겨내고 결연히 애국의 길에 나시시었다. 그리고 갖 창건된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남만린정을 하시느라 어머니의 림중도 지켜드리지 못하시었다.

부모님을 잃은 다음 가장이 되셔야 할 몸임에도 갈대만 처량하게 설레이는 들판에서 설움에 우는 두 동생분을 남겨두신채 기약할수 없는 투쟁의 길을 떠나신 수령님이시었다.

가사우에 국사를 놓으시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항일대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은공을 떠나 자주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력사, 민족의 밝은 래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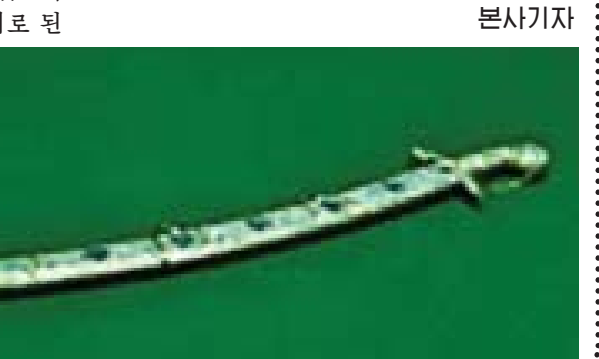
다함없는 흙모의 마음을 담며

장 검

주제102(2013)년 7월 아랍사회부총당 부총비서 아부드라 알 아흐마드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린 선물이다. 수리아에서는 용감성의 상징으로 간주되고있는 장검을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품급이 전해져내려오고있으며 장검을 선물하는것은 높은 존경의 표시로 된다고 한다.

부총비서는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방문하는 기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그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저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리아의 유명한 디마스그장검입니다. 30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이 장검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수리아를 상징합니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이 평화를 지킬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올리리었다.



민, 그런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화폭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TV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국방문소식이 나오면 기쁨과 감동의 마음안고 지켜보고있고 그 이야기로 가정의 꽃을 피우며 밤이 깊어가는줄 몰랐다. 그 무수한 창가마다 예 흘러나오는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에 가득히 흐르는 별무리들을 지상에 옮겨놓은 듯싶었다. 별처럼 빛나는 그리움의 마음들은 단순히 외국방문의

우려 행복을 위해 힘없는 아버지의 길 지금 어데 계실까 그리움 불타네 순간도 그 품을 떠나서 못사는 이 내 마음 원수님 오시는 그 길에 기쁨만 펼치리 그의 안면을 바라며 이 마음 달리네

인민의 그리움은 다함이 없는 애국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면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실 때나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실 때나 인민의 마음은 령도자께로 달리고 그이께서 우리에게 언제든 오실가 하는 기다림으로 가득차있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고있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이 땅우에 펼쳐지는 모든 전변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며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그 품을 떠나 못산다고 러치는 인민의 노래 《그리움》의 선율이 이 강산에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었다는 소식에 접하여 환호를 올리는 근로자들 (2019년 3월)

나의 간절한 소원 그 누가 들어준다면 부디 하늘을 나는 날 개를 주려마 저 멀리 아득한 창공을 새처럼 날고날아 원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싶어라 훨훨 끝없이 날오는 그리운 마음아

사람마다 제 나름의 소원이 있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공통적인 소원은 령도자가 가시는 길을 따르며 그이와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하는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르고싶어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안고 인민은 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셨을 때 이 소원은 온 나라

노래로 보는 인민의 마음

그 리 움

감동적인 나날들을 직접 체험한 어느 한 나라의 사회인사는 《세계정치사는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외국방문의 나날을 보낼 때 조선인민처럼 자기 령도자와 호흡도 숨결도 같이하고 자기 령도자의 걸음걸음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충정다한 인민은 기록하지 못하였다. 오직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다.》라고 감동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와 멀리 떨어졌을수록 더욱 그리워하며 령도자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고싶은 그리움을 안고 사는 인

나날을 보내시는 령도자를 한시바삐 뵈고싶어하는 마음만이 아니다. 온 나라 인민이 바친 애국충정의 구슬땀으로 빛나는 그리움이다.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나날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의 애국의 열의가 더욱 드높아지고 일터마다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적성파들이 이루어졌다.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흘러가는 1분1초의 시간도 아까워 낫과 밤이 따로없이 일한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았고

본사기자 리경월

궁지에 몰린 《자한당》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총선거에서 패배한 후 버티기를 하고 있어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4월 남조선 《국회》에서 벌어진 관동은 재집권야욕 실현에 미쳐달뛰는 《자유한국당》 패배에 의해 탄생된 것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주요개혁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을 유란이 되어서라도 무조건 막겠다고 고아대면서 당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관련법안들을 심의하는 《국회》회의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뿐만아니라 한 야당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하였다.

이러하여 《국회》일정은 마비되고 쌍방간에는 충돌이 일어났다. 격렬한 몸싸움속에 비명고성이 오가고 땅치고 장도끼가 등장하였으며 부상자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여하며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여러겹의 인간띠를 만들어 의안접수를 차단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였다. 곳곳에서 (사람이 깔렸다.), (숨을 질 수가 없다.)며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하였다.

보달이 《국회》관동의 주범은 명백히 《자유한국당》 패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패배는 《야당압박용수사》, 《표적수사》라고 걸고들면서 경찰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소환요구에도 버티기놀음을 하고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라경민을 비롯한 상층인물들은 《정부가 협박하고 짓밟아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들은 오게 될것》이라고 떠들면서 경찰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해나서고있다.

그러면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감옥으로 갈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던 《자유한국당》 패배이어서 태도를 일변하여 버티기를 하고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에서 관동의 부린 량주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끔 때문이다.

남조선의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최대의 번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바빠맞은 《자한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을 걸고들며 버티기놀음을 하고있지만 그

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는 《자한당》이 《국회》관동 사건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거부하는것을 비난하면서 량주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경찰의 소환조사에 대한 거부회수가 계속 늘어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더욱 악화될것》이라고 경고해나서고있다.

《국회》관동사건에 대한 수사는 가혹이나 궁지에 몰린 《자한당》을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렁이에 몰아넣는 촉매제로 작용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본 국우 여론전에 리용되고있는 가짜뉴스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되었다고 한다. 이 청원이 등록된 후 불과 20일도 되기 전에 20만여명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1만명이상이 동의한셈이다. 이로써 《조선일보》는 남조선 언론사 가운데서 최초로 《국민청원》으로 폐간》요구를 받은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일보》를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렁이에 몰아넣는 촉매제로 작용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반일투쟁기운에 여행하여 민족반역행위

를 일삼는 《조선일보》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조선일보》가 민심의 규탄과 저주를 받는것은 응당 한것이다. 들이켜보면 《조선일보》는 1920년에 발족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제멋대로 민족의 존엄에 먹칠을 해대며 침략적인 왜나라에 충실히 복무해온 친일매문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 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황씨개명》과 《황국신민화》교육을 미화하고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과 징

용에 내모는 기사들을 거리낌없이 쓰고 내보냈것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이런 씻을수 없는 친일매국행위의 죄값으로 《조선일보》는 응당 8.15후에 폐간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폐간되지커녕 상권을 바로

본사기자 황금숙

친일매문지가 갈 곳은... 그리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리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일본정부의 사죄와 친일적폐세력의 청산을 요구

남조선인턴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국민투표 실시권적폐청산대진운동본부와 《평화나비대진행동》이 7월 26일 대전에서 집회를 가지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친일적폐세력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배상을 회피해보려는 행위인것이 아니라 경제침략과 역사왜곡행위이며 내정간섭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뿐만아니라 군국주의부활

을 노리며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아베정권에 편승하는 친일적폐세력들이 아직도 땅에 남아 국민의 의사와 공구에 배치되는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아부하는 《조선일보》를 폐쇄할것을 요구하며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일본에 추종하는 모든 적폐세력

을 청산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아베정권의 사죄와 반성을 받아내고 일본의 경제침략, 경제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를 참가자들은 《옥일기》를 찢어버리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그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경제보복조치를 강행한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일본상품불매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단체 반일실천활동 전개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7월 27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소녀상앞에서 13기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굴욕적 《한》일관계를 청산하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범국민 일본이 다시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되기 위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가로막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발대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함의문을 일본대사관 담벼락에 붙여넣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철저히 쓸어버려야 할 친일매국집단

최근 《자한당》패거리들이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친일매국적분색을 날날이 드러내놓아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황교안, 라경민을 비롯하여 역적당패거리들은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이 반일감정을 조작하고있다. 과거를 덮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고아대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이 반일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질 싸움에 끌려들어가는것은 재앙이다. 오히려 지금은 친일을 할 때이다고 제쳐대다 못해 지난 7월 18일에는 《자한당》소속 《국회》의원 운영성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정부》라는 망언을 늘어놓아 저들의 친일매국적정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이런 친일매국세력이 아직도 살아숨쉬며 보수의 간판을 내걸고 《애국》을 부

르치고있으니 남조선에서 진정한 애국이 실현될수 없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외세의 통략물로 되고있는 것이다.

일제는 대대손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죄운 친년속적이다. 40년여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에만도 10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겨레가 일제의 총칼에 의해 학살당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연행되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렸는가 하면 20만명의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 유린당하였다.

이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부와 자원을 다치는대로 파괴탈탈하다 못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것과 같은 반인륜적만행은 세계 그 어느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우리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강제징용피해자배상과 관련한 남조선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뺏치는 일본을 비호두둔하는 《자한당》패거리들의 망동은 친일로 잔명을 부지해온 력대 보수 《정권》의 매국배척행위의 연장이다.

일제의 과거죄악을 물어버리고 애국적인 《협정》체결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유신정권》시기부터 보수매당은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 《미제지향적인 관계구축》을 떠들며 각종 《협정》, 《조약》체결로 남조선은 일본의 현대판식민지로 전락시키려고 발발하였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의 후안무치한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남조선 전지역에서 반일투쟁이 무섭게 노도치자 위기를 느낀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매당은 어떻게 하나 사태를 일본의 리익에 맞게 수습하여 저들의 더러운 재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정략적목적 실현에만 피눈이 되어 친년속적과도 서슴없이 손잡는 매국집단을 가리켜 남조선인심이 《자한당》의 본적지는 일본이며 토착왜구당은 왜나라에나 가라고 저주를 퍼붓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조선사람의 뒤과 얼이 뜨거운 피로만검도 찾아볼수 없는 친일매국집단 《자한당》을 완전히 해체해버리자는 구호를 들고 반일투쟁과 함께 반 《자한당》투쟁을 광범히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섭나라의 후안무치한 경제침략행위

남조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분노한 인민들의 반일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다.

얼마전 민주로총, 《저레하나》, 《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각종 시민주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과 편지, 립장문 발표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군사정정보호협정》과 같은 일본과 맺은 온갖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자주시보》, 《서울의 소리》, 《통일뉴스》를 비롯하여 언론들은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 《한일경제전쟁, 아베공세보다 문제인공세가 위력하다》 등의 제목으로 반일투쟁을 적극 지지해주는 글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일련대단체들이 나오고있다.

광복회, 《경제동원문제해결과 대외적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비롯한 30여개의 각종단체들은 7월 18일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2의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 일본상품불매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상품불매운동의 조직적전개를 위해 광범한 각계층이 망라하는 일본경제침략저지불매운동범국민연대를 하루빨리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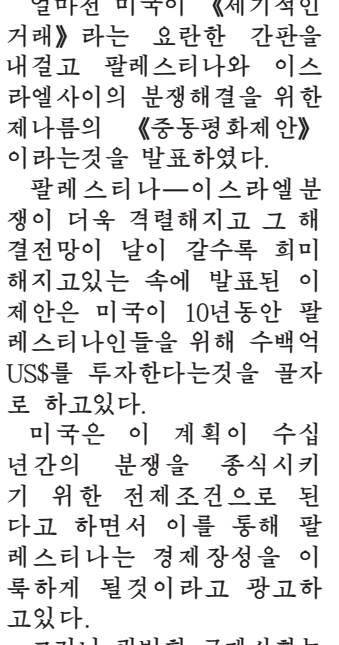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주광일



규탄배격당하는 기만적인 《중동평화제안》

미국이 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국이 돈으로 팔레스티나의 독립성을 없애버리도록 주버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레바논과 마로코를 비롯한 나라들도 미국의 계획을 배격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동부구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세계적대투쟁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리익만 챙겨주려는 미국의 음모적인 《중동평화제안》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치적결정이 없는 팔레스티나인들의 민족적정신을 완벽하게 실현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런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국이 돈으로 팔레스티나의 독립성을 없애버리도록 주버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레바논과 마로코를 비롯한 나라들도 미국의 계획을 배격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동부구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세계적대투쟁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리익만 챙겨주려는 미국의 음모적인 《중동평화제안》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치적결정이 없는 팔레스티나인들의 민족적정신을 완벽하게 실현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국이 돈으로 팔레스티나의 독립성을 없애버리도록 주버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레바논과 마로코를 비롯한 나라들도 미국의 계획을 배격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동부구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세계적대투쟁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리익만 챙겨주려는 미국의 음모적인 《중동평화제안》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치적결정이 없는 팔레스티나인들의 민족적정신을 완벽하게 실현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이 창설되던 날에

예로부터 먹지 않고는 열정을 지날수 있지만 입지 않고는 한집도 지날수 없다는 말이 전해져오고있다.

인민들의 입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기울으신 크나큰 실험과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누구나 먼저 떠올리는것이 바로 비날론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승리한 조국의 레일을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4월에 열린 과학자대회에서 자력적화학공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면서 과학자들의 가슴마다에 비날론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 사랑속에 과학자들은 실험을 거듭하면서 조후에 끝끝내 첫 비날론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6(1957)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정형을 도의하도록 하시고 비날론연구를 책임진 과학자가 보고를 하도록 하시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 비날론연구사업정형에 대한 보고와 비날론제조공정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비날론섬유를 손수 만져 보기도 하시며 그 원가와 용도, 질에 대하여 자세히 료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 나라에서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할수 있게 된것은 국가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성과이라고, 우리는 비날론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여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과학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더욱 힘껏 일하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연구사업에 온갖 정열을 쏟아부었다.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비날론생산의 공업화가 가지는 정치경제적의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화학공장이 어떻게 신비로울것이 아니라, 동무들이 만들어놓은 시험장치를 확장하면 된다고, 우리가 전후에 황해제철소를 건설할 때처럼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접어들어 전인민적운동으로 건설한다면 비날론공장이 우리 손으로 능히 건설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8(1959)년 3월 삼천강반의 잠초우거진 비관을 몸소 밟으시며 비날론공장부지를 잡으시라고 2만4천여 평의 공장을 짓도록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날

론공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위력한 건설집단을 무어주시고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상설비와 자재를 집중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공사가 착공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것을 비날론공장건설에로!》라는 전투구호를 제시하시었다.

각지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군인들, 청년학생들, 지어 가정부인들까지 비날론공장건설을 지원해나섰다.

가장 큰 건설대상을 맡은 인민군인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과 허러치는 감탕속에서도 하루밤사이 1만㎡의 흙을 파내야 하였으며 방대한 면적의 콩크리트 타임을 해야 하였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미 계획된 날자에 공사를 끝내는 것만도 대단한 혁신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에

적극을 창조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9(1960)년 8월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고 2~3년안에 끝내기로 한 이 공장건설을 1년남짓한 사이에 끝낼데 대한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었다.

비날론공장건설공사는 건설계획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할뿐아니라 그 규모가 참으로 컸다.

설계만 해도 300명이 넘는 설계집단이 2~3년을 걸려야 완성할수 있는 량이었으며 설계한 도면은 2대의 화물자동차에 실어야 할 굉장한 량이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50만㎡ 이상의 흙을 파내야 하였으며 방대한 면적의 콩크리트 타임을 해야 하였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미 계획된 날자에 공사를 끝내는 것만도 대단한 혁신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모든 고리를 틀어쥐고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비날론속도를 창조하게 하였었다.

하루밤사이 10만장의 벽돌을 쌓는 기적이 창조되고 열두달이 걸려야 할 40m 높이의 굴뚝속에도 13일만에 완성되었으며 단 열흘동안에 20m 높이의 정류탑이 생겨나게 한 비날론속도는 말그대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영웅사사시였다.

대규모의 비날론공장건설을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비날론속도는 이처럼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로고속에서 창조된 천리마의 속도, 자력갱생의 정신이 낳은 비약의 속도였다.

비날론공장건설은 공화국이 자체의 힘과 기술, 설계와 설비, 자금과 자재로 한해남짓한 사이에 완공한 건설의 대기적이였다.

주체50(1961)년 5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날론공장의 준공대회를 손수 품으시고 그 준공을 선포하신 이날은 바로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인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후에도 합성섬유의 연구와 그 공업화문제에 대하여 깊이 마음쓰시며 경치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 섬유문제는 결정적으로 화학섬유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령을 대신할수 있는 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화학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날론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실험을 기울이시었다.

이렇듯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창설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은것은 인간의 소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한 도서를 즐겨 읽는다. 도서 《100년장수에로의 길》(개정판)도 그중의 하나이다. 2000년에 출판되어 나온 후 새롭게 보충되고 더없이 풍부해진 이 도서는 장수자들의 실패와 그림, 성취, 속담 등을 배합하여 건강장수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서술한것으로 하여 독자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100년장수에로의 길》만 한 폭과 질을 가진 생

활의 길동무를 보지 못하였었다.》,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건강장수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 책을 읽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질에 맞는 운동방법을 선택하고 효과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책을 읽고 저마다 100년장수에로의 길을 걸을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말한다.

부 백원명도 많은 의학도서들을 써냈다는것이였다.

무릇 도서집필을 두고 배를 깔고 살을 에이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부피두터운 도서를 쓰는것은 쉽지가 않다. 말을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힘차게 많은 의학도서들을 무려 40여권이 집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 깃든 남다른 사연을 알고싶어 우리는 류식선생의 맏아들인 평양시제3인민병원의 류원장님을 찾아갔다. 직장의과반야의 정평한 실력가인 류원장은 의료인으로서 20년간 《100년장수에로의 길》, 《60정춘의 비결》, 《다시 찾은 건강의 보리》, 《직장암의 외과림상》, 《복부의 과학》, 《민족유산, 전통의 술》 등 가치있는 도서들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보통생 구역인민병원의 의사로 일하는 녀동생 류호준과 류경안과중합병원 기술부원장인 둘째매

를 지지 않으면 안되었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잃고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장차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건져주는 의사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그후 시골소년의 소박한 꿈을 꽃피워주는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그는 희망대로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강자주교생생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세상에 직업은 많아도 의사의 직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은 없다. 왜냐하면 가장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것은 명과 명예를 얻기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의사들에게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생명의 기사, 그 고귀한 칭호를 소중히 새겨부려었다. 아버지는 외과의사로서, 중앙병원 기술부원장으로서 바쁜 몸이었지만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않았다. 그 날 아버지께서 써낸 의학도서들과 문헌들을 쌓아놓으면 키를 넘을것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쓴 책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바랄것이 없다고 늘 외우곤 했다.》

류원장님의 아버지 류식선생의 소년시절은 불우하게 흘러갔다. 해방전 그의 아버지는 고된 로동의 후파로 다리를 쓰지 못해 생지팡이신

번역해도 100만종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나라의 큰 재부로 되는 책을 많이 써낼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 이것이였구나! 책을 써내는데가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가슴을 기울였다.

(수술칼과 함께 붓을 들자! 나라에서는 누구나 두문, 세물할것을 바라고있다.)

이렇게 되어 류식선생이 처음으로 집필한 도서 《위절제술》이 나오게 되었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시국상황에서 인민들의 병치레에 도움이 될것을 바라는 마음을 안고 쓴 도서는 의료인들속에서 반향이 컸다. 첫 성과에 힘을 얻은 그

는 수술칼과 붓을 무기로 삼고 누구나 쉽게 갈수 없는 먼 령정을 휘젓고 걸었다. 그 과정에 류식선생이 혼자 썼거나 공동집필하여 내놓은 가치있는 의학도서만 해도 30여권, 각종 소문문들은 100여권에 달하였다. ...

애국심과 나라의 재부

격적없이 진행되는 가족합평회의 분위기는 자못 진지했다. 류호준이 쓴 인고를 읽은 소감을 나누며 좋은 점은 무엇이고 부족하거나 모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보충토의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무척 인상깊었다. 그런 우리에게 류원장은 도서집필과 관련한 가족합평회가 처음이 아니라면서 추억을 더듬었다. ...

1994년 어느날 류식선생의 가정에서는 류다름 가족회의

—목란광명회사 자연에네르기제품제작소에서—

자연에네르기제품들을 적극 개발

태양빛에네르기를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하려는것은 전력생산을 높이고 많은 경제적리을 얻을수 있을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유리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추세로 되고 있다.

최근 목란광명회사 자연에네르기제품제작소에서 자연에네르기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곳 제작소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규모박막태양빛발전지관들과 다결정태양빛발전지관생산공정을 꾸려놓고 년산 수십MW 능력의 각종 태양빛발전지관들과 그 응용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조순수생산설비, 레이자절단기, 유리연마세척기, 플라즈마화학기상침착기 등 고도로 정밀화된 설비들로 장비된 이곳 제작소의 생산공정들에서는 휴대용 및 가정용, 발전소용 등 여러가지 용도와 규격의 태양빛발전지관들이 생산되고있다.

제작소에 구축되어있는 자동화된 태양빛발전지관생산공정

장은 수동집합에 의거하는 태양빛발전지관생산공정에 비해 대단히 안정되고 효율이 높다.

이곳에서는 전기광검측기, 모듈검측기, 태양빛모의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검측설비들을 갖추어놓고 모든 제품의 성능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제작소에서 생산한 태양빛발전지관들은 수입산제품들에 비해 최대출력과 소전상태, 절연저항을 비롯한 여러 기술적지표들에서 우수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특히 박막형규소태양빛발전지관은 마감재로 쓰이던 색유리에 비해 원가가 훨씬 낮으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을뿐아니라 호린날에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각종 태양빛발전지관들은 국내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어 국가품질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제작소에서는 계통병렬형발전지관에서 핵심으로 되는 계통병렬형발전지관을 비롯하여 휴대용태양빛발전장치, 충전전원장치 등 여러가지 응용제품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고있다.

계통병렬형발전지관계를 리용하면 독립형발전지관에 비해 아무런 제한없이 태양빛발전량을 높일수 있고 국가



《동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인민들의 건강장수에 이바지하는 애국자가정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그토록 기쁨을 드리게 될줄은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의학적상식들과 자료를 묶은 도서 《100년장수에로의 길》을 몸소 보아주시고 책이 잘되었다고, 컴퓨터에 입력시켜 독자들에 어느때든지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온 집안이 기뻐할생각을 가지고 썼다니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후 이들은 가족의 노력 이 깃들여있는 도서 《60정춘의 비결》이 출판되었을때에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새로 나온 의학도서 《60정춘의 비결》이 잘되었다고, CD에 넣어 리용해도 좋을것이라고, 이 책에는 60정춘으로 살기 위한 건강관리방법이 적혀있는데 잘했다고 치하시었다.

둘째딸 류호준은 《분엔 넘치는 영광을 받아안던 그날 우리가 하는 의학도서집필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인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쓴 40여권의 의학도서들, 그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 깨닫힌 량심을 바쳐가는 이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깃들여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였다.

류원장은 말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의학도서를 집필하겠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는것, 이것은 우리 가정의 기풍이다.》

오늘도 이들은 의학도서집필이라는 과제를 스스로 맡아 안고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흥병식



